



사랑 · 어울림 · 꿈

광장



대장들녘의 겨울생명(백백도요, 황조롱이)



※ 환경보호를 위해서 소식지의 내지는 재생지로 만들고, 표지는 코팅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0



2 새해인사글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 변종욱

7 교신탐방

[아기스포츠탐방] 소중한 추억하나, 아기스포츠탐방의 7살 졸업여행

[어린이Y] 2018년 YMCA 제주역사문화캠프 | 임효원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회복적마을 뮤지컬 콘서트, 그리오의 탄생은!

17 클럽이야기

[등대생협] '박혜연, 응언 사람책을 읽다' | 김지현, 김현정

[기타클럽] G樂D樂 작은 음악회 | 김영희

23 의창한담(醫窓閑談)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삼겹살 파티를 하시라 | 박종훈

25 부천Y 3대 과제

개미 시민의 선택(3)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 김기현

대장들녘 생태대탐사!! | 최여민

부천YMCA 3대 과제 홍보

대장들녘 지키기, 탈핵, 미세먼지 | 조혜진

34 지역이슈

[시민의 눈으로 부천시정 돌아보기] '동네방네 티타임' | 박다정

36 만화로 보는 밥상특독 밥상넷, 감기특효약이 항생제? No!! | 연은미

40 회원광장

[故 하상보 초대이사장 4주기] 그림고 그리운 하상보 초대이사장님! | 정다운

[문화산책] 눈이 내리면 | 왕정현

[장이야기] 고추장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메주만들고 왔어요 | 이진영, 박세훈

48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3) “우리는 배달민족” | 한면희

50 부천Y 이모저모

55 클럽일정 및 주요일정

발행인 변종욱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8년 2월 8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기재단 박종훈, 한정숙, 왕정현, 김현주, 노진영, 연은미, 박명애, 조혜진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yy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물이 없는 르비딴에서

출애굽기 17장 1~7절



부천YMCA 이사장 변 중 묵

2018년 신년예배에서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전문은 부천Y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2018년 무술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YMCA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태양이 떴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아픔과 힘들, 우울한 것은 다 잊고,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한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정 중에 르비딴에 이르러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중 하나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생긴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여행자들은 길 떠난 것

을 후회합니다. 애굽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나일강의 홍수가 걱정이었지 물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고달팠지만 물이 없는 고통은 겪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갈증 속에서 모세에게 따진 것입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다투며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언급되고 ‘호렘산에 있는 그 반석’이 언급되는 본문 5~6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쓴물조차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저녁도, 그날 아침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목말라 죽게 하실 분입니까?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화상하면서 비참했던 과거를 미화시켰습니다. 모세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르비딤이라는 제한된 환경을 대할 때, 그 시간과 환경에 대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합니다. 이 아픔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사람끼리의 다툼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들의 대부분은 바로 자신의 목이 같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나의 아픔을 더 크게 확대하면서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선한 물 또한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는 그들의 다툼과 원망을 보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협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목이 같하여 분노가 치민 백성을 보면서 모세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4절)’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5~6절)’고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에서(3:1) 그 때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물을 이미 호렙산의 바위틈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냥 뒷집 지고 계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도 그렇게 해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물을 ‘신령한 음료’로, 반석을 ‘신령한 반석’으로 해석하며,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생수와 온 인류를 향해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차

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잠시 잊을 때 그들이 서있는 땅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맛사),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투는 자리(트리바)로 바꾸고 있었지만 그 불신앙의 땅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맛사요 트리바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재계의 신으로까지 불렸던 故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때문’에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덕분’에 평생 근검절약을 줄 알아 부자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소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 갖고,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배움에 온 정열을 쏟았으며 말년에는 ‘마쓰시타 정경숙’이라는 배움터까지 세웠습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몸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고 삼가면서 건강을 챙겨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삶을 대하는 자세의 특징은 ‘때문’에 라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라고 말할 줄 아는 철저한 긍정의 자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었던 바로 그 르비딴에서 최초의 전쟁인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되고 ‘여호와 닛시’의 대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르비딴은 이 승리를 위하여 머물게 했던 곳입니다. 출애굽기는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은 때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녕 마실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반석 밑으로는 넉넉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넋시’의 승리도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부천YMCA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때론 르비딤에 머물지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치십시오. 마실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에서 르비딤에 이르렀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지만 광야같은 이 세상 르비딤처럼 물없는 갈한 곳에 머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하듯이 설상가상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힘겨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의 길이 분명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 하였고 그 반석에서 백성이 마실 물을 나리라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받쳐 들고 기도한 아론과 훌의 합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2017년도 부천YMCA가 늘 행복하고 웃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서로가 아프기도 하였고, 때론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천YMCA 여정이 그러했듯이 우린 일어섰고 뚜벅뚜벅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전진하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부천YMCA 2018년 호에 승선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기스포츠팀

소중한 추억하나, 아기스포츠팀의 7살 졸업여행

일 년을 손꼽아 기다려온 7세 졸업캠프를 1월 4일~5일, 1박 2일 일정으로 춘천 용화산 자연휴양림으로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고 어깨에 배낭을 둘러메고 온 친구들, 설렘 가득한 표정을 보니 엄마 아빠랑 떨어진다는 걱정보다는 소중한 추억하나를 담아 올 준비가 되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나는 졸업여행”의 구호를 외치며 기분 좋게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지루할 틈도 없이 선생님이 준비한 초성게임, 수수께끼 퀴즈를 풀며 금세 토이 로봇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용화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한 아이들은 항상 자연 속에서 오감을 자극하며 즐겨와서인지 자연과 동화되어 더욱 익숙해보였습니다.

짐을 숙소에 정리하고 드디어 첫 미션활동인 숲속 탐험을 하였습니다. 포스트 목걸이를 하나씩 걸고는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찾아 가는 길,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다행히 지난 번 많이 내린 눈이 추운 날씨로 그대로 남아 숲속을 오르는 길에 썰매타기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급식방에서 모아 주신 쌀포대에 몸을 싣고는 겨울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놀이 후 먹는 저녁식사는 꿀맛같이 남김없이 싹싹 비워 내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선생님이 들려주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도 받아보았습니다.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는 아이들은 잠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며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이루어진 보물찾기 놀이로 즐겁게 보내고, 하루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는 모두 편히 꿈나라 속으로.... 뽕~~뽕! 뽕!





둘째 날, 오전에는 겨울 민속놀이, 오후에는 겨울놀이 활동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잘 날아 오르지 못한 연도 있지만 친구들은 힘껏 달리며 그 자체를 즐기며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던 썰매타기를 한 번 더 즐겼습니다. 소복소복 쌓인 눈을 밟으며 언덕길을 따라 도착한 운동장,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저렇게 많은 눈을 우리 아이들이 본적이 있을까 할 정도의 새하얀 눈 세상이 있었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신나서 방방 뛰고 눈 위에 누워보기, 눈가루 날려보기, 선생님과 친구와 함께 눈싸움하기 등 온통 눈 세상이라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며 겨울놀이를 맘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선생님, 친구들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이 졸업의 의미를 알기엔 어리지만 즐거운 추억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다시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졸업여행을 통해 어느새 몸, 마음, 생각이 키만큼 성장한 아이들의 의젓함과 대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한 좋은 추억, 좋은 여행이 밑거름이 되어 아이들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친구들과의 우정도 소중히 간직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사랑합니다.

어린이Y

2018년 YMCA 제주역사문화캠프



어린이 Y 임효원

YMCA 역사기행단에서 제주역사문화캠프를 갔다. 김포공항에 가니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온 사람들도 있어서 놀랐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출발했다. 제주도의 삼다도는 ‘바람, 여인, 돌’이라고 했던가?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온몸으로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삼성혈이었다. 삼성혈은 삼신 인이 제주도로 맨 처음 내려왔을 때 생긴 지혈을 뜻하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돼지국수 가게인데 맛이 끝내 주었다. 알고 보니 방송에 많이 나온 맛집이었다. 고기국수를 다 먹고 간 곳은 제주도 자연사 박물관이었다. 작년 7월에 제주도에 와서 가본 곳이었는데 다시 가보니 그때 놓친 전시들이 많은 것 같았다. 그 중 로비에서 본 엄청나게 긴 산갈치와 전통 가옥 부엌 쪽에 밀랍으로 만든 인형





이 불을 때고 있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제주 4.3 평화기념관이다. 전시관 입구에서부터 아픈 역사의 실체가 잘 표현되어 있었다. 돈슨트를 들을 때는 해설사분이 너무 실감나게 설명해 주셨다. 6.25전쟁이 끝난 후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지정해서 뽑으라로 지시를 했다. 그 이유는 정치를 자기들 멋대로 하기 위해서이다. 그에 반대한 제주도 사람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서 아이가 희생되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사죄 하지 않았다. 그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경찰과 국회의원들은 제주도 사람들을 다 빨갱이라고 하며 무자비하게 죽인 사건이 4.3사건이다. 출구 쪽에 전시되어 있는 4.3사건을 직접 경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을 읽고 무섭고 슬펐다.

첫날 마지막으로 간 곳은 어린이 4.3사건 전시관이였다. 아직 전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안에는 4.3건을 겪은 아이가 적은 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두 석 줄 되는 짧은 글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숙소로 돌아와 방 배정을 한 후 씻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머니들의 요리 솜씨가 끝내주었다.

그 후 우리는 늦게까지 놀다 잠이 들었다.

이틀째 되는 날 버스를 타고 감귤밭으로 갔다. 제주도에서는 귤, 한라봉 같은 과일이 잘 자란다고 한다. 밭에서 나오려는데 균형을 잘못 잡아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운이 없어서인지 감귤가지에 이마를 긁혀 흉터가 생길 것 같다. 감귤을 버스에 싣고 바나나를 보러 갔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따뜻했다. 내 키에 2.5배나 되는 바나나 가지만 보았다. 아직 바나나가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엔 송악산에 가서 일본이 제주도 주민들을 억지로 동원하게 시켜 해변에 파놓은 인공 굴을 보았다. 일본군들이 미군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무기들을 저장하려고 파 놓은 굴이었다. 그 굴은 산사태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서만 봐야 했다. 송악산을 올라가는 도중에도 인공 굴을 보았다. 안에 들어가 보니 따뜻했다. 송악산을 내려가는 길에는 눈이 우박같이 내려서 우리 몇몇은 눈사람이 되어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아띠선생님께서 숙소를 가질 오설록을 갈지 우리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숙소로 가고 싶었지만, 어설록에 가게 됐고 우리는 그곳에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고 왔다. 숙소로 왔을 때 우리는 모두 기진맥진해 있었다. 오설록에서 숙소까지 차가 막혀 2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일어나서 씻고 짐을 모두 썼는데 어제의 우박 같은 눈 때문에 오전에는 비행기가 못 뜬다고 했다. 한 시간쯤 숙소에서 놀다가 버스에 짐을 싣고 동문 시장으로 갔다. 여기도 작년에 와 본 곳이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제주도에 파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물건 중 제주도 초콜릿을 싸게 샀고 둘러 보는 도중에 열다섯 상자에 만원인 크런키가 있어서 같이 간 동생과 반씩 돈을 내고 샀다.

제주도 국제공항으로 왔는데 비행기가 5시간이나 연착이 되어서 노숙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 와중에 게이트가 바뀌어서 기분이 나빴다. 드디어 비행기를 타서 김포로 왔다. 2박 3일인데 일주일은 더 된 것 같았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회복적마을 뮤지컬 콘서트, 그리오의 탄생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경기꿈의학교의 지원을 받아 2017년 한 해 청소년 치유 꿈의 학교 온새미로를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자유춤의학교(춤), 자유음악학교(음악), 드라마스쿨(즉흥연극) 수업을 통해 초등~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온새미로) 만나고, 마을과 소통하며 꿈을 찾았습니다.

서아프리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리오’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음악과 춤이라는 예술의 힘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오의 탄생’은 이러한 소망과 의지를 담아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마을의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낸 뮤지컬 콘서트입니다.

모두가 입시지옥의 컨베이어벨트에 오르고 있는 힘겨운 청소년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특별함 그대로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오’



그리오의
탄생

가 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꿈을 찾고 자신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오의 청소년연극, 서아프리카의 춤과 음악,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퓨전음악 공연으로 2017년 송내동의 연말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함께하는 힘, 그리고 보람



부천여중3, 드라마스쿨 참가자 김수연

나의 꿈은 연기자다. 온새미로 드라마스쿨에 벌써 세 번째 참여하고 있다. 드라마스쿨 팀은 ‘그리오의 탄생’ 1막인 ‘청소년의 삶’을 연극으로 만들어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힘겨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대사를 직접 만들고 연습을 하며, 더 잘 표현이 되도록 몸짓과 대형을 연구했다. 솔안아트홀의 큰 무대에 리허설 두 번만 하고 무대에 서야한다니 막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지만, 무대체질인지 리허설 때보다 막상 본 공연에 서니 더 잘한 것 같다. 관객들의 큰 박수도 받고, 선생님들께도 엄청난 칭찬을 받고!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었다.

1막을 끝내고 관객석으로 내려와 그 뒤는 공연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공연을 보았다. 우리가 표현한 청소년들의 힘겨움, 절망 뒤에 그리오 아미두가 세상을 꾸짖으며 청소년들은 온새미로(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모두가 힘을 합쳐 아픔을 치유하자고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온 세계와 우리나라 전체의 청소년의 대표로 그리오에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고, 청소년의

현실을 잘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뻐다.

마지막에 대동한마당으로 다 같이 아프리카 음악에 맞춰 원을 만들고 자유롭게 춤을 추었는데, 어떤 정해진 틀이나 안무도 없이 무대에서 노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하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웠을텐데 함께 하니 까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서 나도 함께 어울려 움직일 수 있었다. 함께하는 힘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오의 탄생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어깨가 으쓱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고 싶다.

▶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해냈다!



정명고2, 나래유랑단 계네마 단원 **염혜진**

베트남평화기행을 다녀온 계기로 나래유랑단 계네마 활동을 하게 되었다. 유일한 고등학생 단원이다 보니 ‘그리오의 탄생’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 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단 생각을 많이 했다. 낮가림도 심한 내가 무대에 선다는 것도 큰 도전인데, 여러 가지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쳤던 것 같다. 그런 나를 움직이게 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를 살피고 힘들어하면 곁에 와서 안아주고 ‘천천히 해도 된다’며 위로하고 북돋아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덕분에 힘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사실 나라에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의 나는 늘 숨이 막히는 고통에서 살았던 아이였다. 세상에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몰랐다. 그런데 께네마 활동을 하고, 그리오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는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이상함'을 '특별함'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달라보였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궁금증을 갖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엄청난 변화다.

‘그리오의 탄생’을 완성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어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기 때문에 이 짧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동안 멋진 공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공연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 공연을 기획했는지 궁금해 하고 아프리카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더욱 커져서 청소년을 생각하는 사람들, 멋진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등대생협

사람이 책이다, 등대 리빙라이브러리

‘박혜연, 응언 사람책을 읽다’

등대 2부 활동 중 독서활동에서 1년에 1번 ‘사람책’을 만나는 리빙라이브러리를 진행합니다. 리빙라이브러리는 사람의 인생도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책’과의 만남을 통해 책 한 권을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12월에는 박혜연 부천Y 증경 이사장, 응언 베트남 평화활동가를 사람책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박혜연 사람책과의 만남

- 행복한꽃길 등대 독서지기 김 지 현

인생의 멘토를 만나 직접 듣는 인생 이야기.

매번 전업주부로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 지칠 때, 살림살이에 지칠 때, 가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정말 속상하고 기운이 빠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박혜연 증경이사장님의 리빙 라이브러리(사람책)은 제 눈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어준 보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YMCA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YMCA 활동 에피소드, 천연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녹색가게와 녹색공방 이야기, 사진 이야기, 자식교육에 대한 이야기 등 정말 주옥같은 시간이라 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박혜연 증경이사장님이 들려주시는 인생이야기는 리빙라이브러리에 참여한

YMCA 회원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들려주신 소중한 이야기들 중 제 마음에 새겨 놓은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39살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못할 것이 없다.”

“사람들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내가 저주면 되는 것이다.”

인생의 2막을 시작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나시는 박혜연 증경이사장님께 사랑이 가득 담긴 응원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는 그 용기에 다시 감동받으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멘토를 만나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인생의 지혜와 좋은 에너지를 후배들에게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박혜연 이사장님을 맞이하는 제주도는 참 복도 많다! 가시는 곳곳마다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책 응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 오복녀 등대 독서지기 김 현 정

2016년 우리 가족은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과 어른들 심지어 노인들의 얼굴에도 항상 웃음이 가득 차있어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다. 지금도 나에게 베트남은 사람들이 친절해서 기분이 좋은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

친절한 사람들의 미소를 잊을 수 없었던 나라 베트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와이를 향한 그 날은 꽤 추운 날이었다. 응언 선생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모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응언 선생님은 예쁜 모자를 쓰고 역시나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나에게 있어 전쟁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항상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였다. 위안부 문제나 일제 강점기 동안의 수많은 학살과 피해 등 우리는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 지식은 그저 우리나라가 참전했다는 정도였다.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은 30만 명이 참전했다고 했다. 미군이 한국군을 교전 지역 마을 탐색에 주로 배치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가장 끔찍한 종류의 학살은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을 가장 많이 학살한 주범이 바로 한국군이었다. 그래서 베트남 전역에는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만행을 잊지 않겠다’는 한국군 증오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져 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미군에 의해 희생된 지역에는 피해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지역에는 그 어떤 사과나 방문도 없다고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행동이 그렇게 욕을



하던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조상들의 발자취를 이해하고 위업은 대대로 기억하고 과오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 배웠었는데,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나는 너무 부끄러워 응언 선생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베트남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싸워서 당연히 이겨야지요~!”

응언 선생님의 삶을 바꾼 질문이라고 했다.

이 대답을 들은 선생님의 친구는 깜짝 놀라 말했다고 한다. 이 땅 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응언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베트남은 미국이랑 전쟁해서 이긴 유일한 나라라고 배웠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 질문 이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군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평화관계망을 만드는데 힘쓰고 계신다고 하셨다.

응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사라는 과목이 학교에서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 그 나라가 걸어온 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자행했던 일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타클럽



작은 음악회



G樂P樂 2기 김영희

늦깎이로 기타를 메고 Y회관에 들어섰던 게 엇그제 같다. 그런데 벌써 2년이
라는 시간이 내 뒤에 놓여있는 것을 떠올리니 웃음이 피었다가도 씩스러움에 얼
굴이 빨개지는 요즘이다.

「기타등등」에서 「지락피락」 클럽으로 승격이 되면서는 뭔가 모르게 무게감이
느껴지고 소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듯하다. 그냥 기타만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클럽이라는 틀 속에 묶이다 보니 책임감, 아니 부담감도 함께 따랐
다. 그래서일까? 클럽으로써 첫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좀 더 많이 연습





해야 된다는 부담이 가장 컸던 것 같다.

같은 기수끼리 연습을 해야 되다보니 서로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렵게 시간 맞추었다. 선생님을 찾아가 여쭙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기면서 음악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다. 하지만 ‘연습만이 살길이다’라는 선생님 말씀에, 또 없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고 다시 만나서 손을 맞춰보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랬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연주에 얼마나 맘을 졸였던지...

회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까?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연습하자고 치렀던 첫 리허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더욱 걱정만 늘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주라는 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실전에서 잘하면 된다고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최종 리허설을 끝냈다. 음악회 준비를 끝내고 불안함을 떨치려 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걸 무슨 일인지 다른 회원들은 리허설 때와는 달리 서로가 마주보며 웃고 있지 않은가?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막내인 지혜동생 아이디어로 연말 분위기 물씬 나게 준비한 소품을 두르고 서로를 쳐다보니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불안함도 잠시, 모두가 음악으로 행복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가 시작되었다. 1기들의 든든함에 기대어 우리 2기, 3기가 즐겁고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었고 4기들의 푹푹하고 싱그러움과 아이들의 통통 튀는 모습에 쫄깃쫄깃 했던 심장은 나도 모르게 평화로움에 젖어 들어 즐기고 있었다. 용감하게 들이댔던 독주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림을 숨길 수가 없다. 많이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함을 느꼈다.

나이 들어 악기 하나 연주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준비된 노후(?)로써 더할 나위 없지 않겠느냐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 속에 오늘도 어설픈 나만의 연주회를 꿈꾸어 본다.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삼겹살 파티를 하시라



부천Y 중정이사장 박 중 훈

삼겹살이 미세먼지의 독성을 제거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가?

부천 Y의 2018 회원모집 기간 중 ‘섬김공동체’의 가벼운 궁금중의 하나였다. 우리 공동체는 ‘대장들넋 지키기’, ‘탈핵’의 추천과제를 두고 ‘미세먼지’를 골랐다. 미세먼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건강을 많이 해치는 주범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공동체 활동회원들은 이미 여러 교육과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 정제, 발생원인, 부천지역의 실태, 시민으로서 실천방안 등 많이 알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Y본관이나 부속, 위탁기관의 실내외, 지역에 특히 많은 대형쇼핑몰을 택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하고 토론하였다. 직업이 한의사인 까닭에 ‘미세먼지와 삼겹살 효능’이란 우스개처럼 나온 궁금중에 한마디 있어야 했다.

너무 가벼운 얘기라 미세먼지에 대한 원론적인 면을 먼저 짚었다.

우선 미세, 초미세 먼지의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고 스모그 같은 오염도 중요하므로 합쳐 ‘대기오염’으로 크게 보자. 원인은 크게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및 산업시설의 연기와 분진, 중국, 몽골로부터 오는 황사다. 이들 속에 있는 황과 질소산화물과 중금속이 특히 위험하다.

피부병, 호흡기, 심장질환에 악영향이 크고 민감군-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자-에 치명적이다. 특히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임산부의

경우 과다노출 되면 저체중아, 사산, 기형출산의 위험이 있다. 우리 Y는 어린이, 젊은 여성회원이 아주 많다.

대책으로 오염도가 높은 날은 외부활동의 자제나 마스크 착용, 피부나 눈 등 외부접촉은 씻기, 죽염 가글, 점안 등으로 빨리 제거한다. 호흡기, 식도 등으로 흡입된 것은 차, 음식 등으로 빨리 배출시킨다. 녹차, 오미자차, 도라지청, 매실청, 생수, 과일이 좋다.

위성지도를 보면 부천과 부평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동으로 우장산, 춘의산, 원미산, 남으로 성주산, 서로 장수산, 철마산, 계양산으로 둘러싸인 호리병 모양의 분지다. 북쪽인 대장들녘만 터져 한강에 닿아있다. 또한 인천에서 대천까지 서해안에 산재한 화력발전소와 중국 동해안의 산업시설의 오염원과 황사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이다. 녹지면적은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밀도와 불투수율은 전국 최고다. 게다가 시정부는 개발일변도 정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도는 전국 78개 도시 중 9위로 서울보다 높다. 이런 환경임에도 부천의 허파이자 바람길인 대장들녘을 공단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다. 공단이 들어서면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여 환경질환과 열섬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더욱이 대장들녘은 재두루미 도래 등 생태계의 보고 아닌가? 시민과 Y회원 전 역량을 모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삼겹살의 효능을 사족으로 달았다.

의학계나 과학계에서는 삼겹살이 미세먼지 제거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의학은 다르다. 한의학에서 돼지고기와 삼겹살에 많은 기름은 해열, 해독, 종창,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특히 허약한 몸을 보하고 폐를 부드럽게 하여 기침을 멎게 하고 수은중독을 해독한다. 특히 수은중독의 해독능력은 카드뮴, 납 등 다른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기름기가 가진 흡착 속성은 기관지를 비롯한 장기에 흡수된 오염물을 끌어안는다. 또 원활한 배변기능으로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기도 한다. 이만하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먹을 만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심한 노동과 진폐, 규폐의 위험이 높은 탄광노동자들이 삼겹살의 효능을 증명하지 않는가? 마치 보신탕이 큰 병이나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영양학 측면에서 다른 고기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경험에서 나오는 신뢰를 어찌랴. 대기오염이 심한 날 삼겹살 파티를 하시라.

개미 시민¹⁾의 선택(3)²⁾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부천Y 사무총장 김 기 현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 생태 보고(寶庫) '대장들넉'

부천의 도시면적은 겨우 53.44km² 여기에 88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에서 발표한(2013년)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결과 부천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³⁾이 61.7%로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구밀도 1위인 서울의 불투수율이 54.4%이니 **부천은 환경적으로 순환되지 않고, 땅이 건강하지 못한 도시라는 뜻이다.**

도시공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도심 및 공장지역의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 1) 그냥 재미로 만든 조어(造語)이다. 개미처럼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이 잔머리만 굴리며 군림하는 베짖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고, 행동해야 한다.
- 2) "지방자치 무용론"을 심심찮게 듣는다. 심정적으로는 공감되지만, 깊게 생각하면 왜곡된 선거제도, 권위주의, 독단과 독선이 용납되는 제도적 허점, 승진에만 연연하는 공직사회, 시민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 3) 아스팔트 등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공간으로, 불투수율이 높으면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아 지하수가 고갈되고, 집중호우 시에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이 저지대로 몰려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장들넉 습지

경기도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11㎡로 최하위이다. (2014년 산림청 통계, 수원시 4.2㎡, 고양시 4.42㎡, 성남시 6.11㎡, 용인시 5.75㎡로, 안산시 5.77㎡)

이렇게 열악한 부천에서 대장들넉은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찾아오고, 법정 보호종 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 등 총 32종이 서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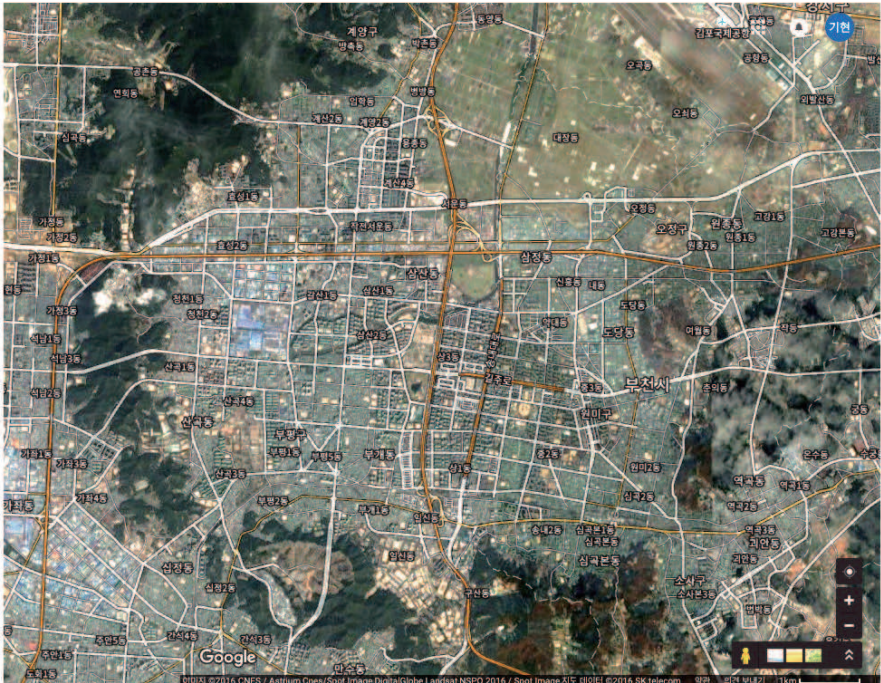
부천시는 대장동 반환경 산업단지 본격화

120만평 규모의 대장들넉⁴⁾에 약 70만평 규모의 ‘대장동 산업단지’ 건설은 부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2015년 5월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더니, 2016년 10월 12일에는 부천시가 나서서 대장들넉 보전용지 약 70만평을 시가화용지로 전환하고, 급기야 2017년 12월 11일에는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표하면서 개발계획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만일 ‘대장동 산업단지’ 70만평이 개발된다면 부천시민 삶의 질에는 어떤 영

4) 240만평 규모의 대장들넉은 부천시 120만평, 강서구 120만평을 포함하고 있다.

향을 미칠까? 아래 사진은 ‘위성사진으로 본 부천’이다. 부천·부평·계양은 (오른쪽부터) 도당산-원미산-성주산-철마산-천마산-계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이다. **위쪽의 열려있는 공간이 대장들녘**으로 한강의 바람이 이곳을 통해 도심(都心)으로 유입된다.



[사진출처 : 구글지도 갈무리]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장들녘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부천의 도심(都心)으로 오는 바람 길이 막혀** (분지형 도시인 부천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뜰이나 심각한 대기질이 더 악화되고, 미세먼지도 증가하여 아토피·천식·비염 등 환경성질환이 악화되고, 열섬현상⁵⁾도 강화되

5)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구조물로 뒤덮여있는 도심은 녹지가 많은 인근 교외 지역에 비해 태양열로 쉽게 달궈지며 도시 내에는 공장,주택,자동차 등이 많아 연료를 연소시킬 때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2~5℃ 가량 높은 온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기온이 같은 지점을 등온선으로 연결시켜보면 높아진 도시 내 기온 분포도가 섬의 등고선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 열섬(heat island)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 부천시민들은 도시 폭염에 더 시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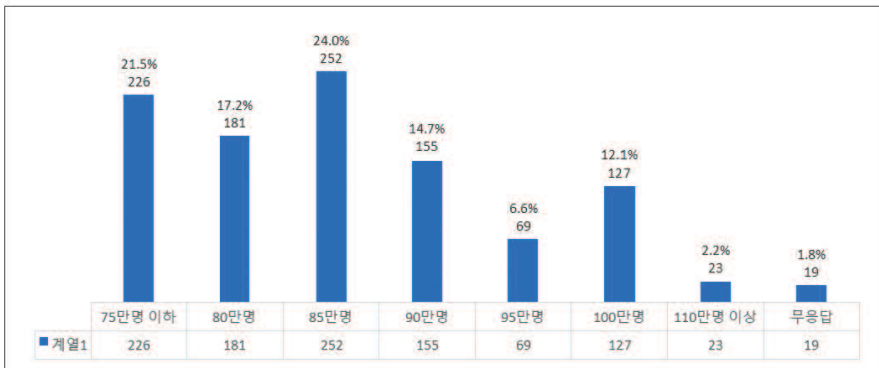
얼마 전 경향신문에 “미세먼지 필터, 도시숲”(1월 21일)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미국뉴욕주립대 연구진이 세계 주요 거대도시 10곳을 조사한 결과 “도시숲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이 연간 5억 500만 달러(약 5404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95%가 넘는 4억 8200만 달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관련된 사회적 편익,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세계 거대도시들에게 현재 약 21%인 도시숲을 약 19% 더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천의 미래 – 개발인가? 지속가능성인가?

작년 부천시와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가 ‘부천의 도시지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설문결과 “시민 1,052명 중 62.7%는 부천시 적정인구가 85만 명 이하”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부천 2030 장기발전계획’은 2030년 인구목표를 99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설문결과 100만 명 이상 도시를 원하는 숫자는 12.1%에 불과)

현재 부천시는 100만 명 도시를 목표로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뜰이나 좁은 면적, 높은 인구밀도, 녹지율 최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부천시 미래 인구에 대한 시민 1,052명의 견해〉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의 손으로 일구어야

대장동 산업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을 받아야 하고,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6월은 ‘지방선거’이다. “미래 부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를 시민들이 토론하고, 선택해야 한다. **시민은 관망자나 평가자가 아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부천Y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대장들녘 지키기’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70만평 산업단지 개발 저지와 120만평 대장들녘 미래를 위한

대장들녘 생명포럼

제1차 포럼 : 대장들녘이 품은 생명과 우리 미래

▶ **1. 25 (목) 오후 7시**
▶ 부천시민학습원 누리터

순서	▶ 작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발표 1. 대장들녘 생물다양성 및 환경생태적 가치 : 최진우(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2. 대장들녘 논습지 시민참여 활동 : 김낙경 (부천시민연대학의 사무처장) 3. 대장동 생태체험활동 및 환경교육적 가치 ▶ 자유토론
-----------	---

문의	부천YMCA 박다정 032.325.3100
주최	대장들녘 친구들



‘제1회 대장들녘 생명포럼’을 1월 25일(목) 개최했고, ‘제2회 대장들녘 생명포럼’은 “바람길과 대기 오염, 폭염”(계명대 정응호 교수)을 주제로 2월 27일(화) 오후 7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에 시민캠페인을 실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5월부터 7월까지 시민생태환경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천을 함께 걷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조사하고, 웃고 떠들면서 “우리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 도시” 부천의 미래를 창조하자.**

대장들넌 생태대탐사!

대장들넌 금개구리는 가족농부 최여민



↑
야는 토종벼 '대궐찰'

대장들 넌 이야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셀수없이 많을것 같아요.

저는 가족, 친구들과 같이 대장들넌에 갔어요. 그곳에서 뽕기도하고, 토종벼인 대궐찰도 관찰하고, 새로운 친구도 많이 만났어요. 잠자리, 우렁이, 개구리, 메뚜기, 왜가리, 재두루미랑 고라니도 만났어요.

그리고 보내기를 할 때, 흙이 정말 물컹물컹한게 너무 좋았죠. 대장들넌은 자연이 살아숨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대장들넌에 공작벌 들이서게 될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잠자리랑 개구리, 메뚜기요? 또 왜가리와 재두루미, 고라니는

어디로 가야 하죠?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걸 주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뱃어가는건가요? 저는 습지가 좋아요. 이런 도시에서 사골느낌을 주는 대장들넌이

사라지는 건 슬퍼요. 자연이 사라지면 대장들넌이 파괴되니까요. 자연이 없으면 좋겠어요.

대장들녘
지키기

대장들녘에 방문하기

녹지를 지키는
정책 요구하기

대장들녘에 사는
생물 이름 알기

부천에 마지막 남은 들판
녹지공간을 지켜서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부천YMCA 3대 과제

탈핵

핵발전으로 만든 전기는
이웃의 눈물을 타고 옵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한걸음, 탈핵

미세먼지
줄이기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제대로 알고
다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전기 아껴쓰기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찾아보기

노후 경유차
사용 자제

안전지도 만들기
(미세먼지 측정하기)

탈핵 뉴스 찾아보기

나무와 식물 심기

부천Y 회원의, 부천Y 회원을 위한, 부천Y 회원에 의한

부천Y 3대 과제

‘대장들넌 지키기, 탈핵, 미세먼지’

—회원모집기간동안 3대과제 실천하기—

11월은 Y가 들썩거리기로는 최고인 그야말로 부천Y와 함께하는 달입니다. 2018 회원모집운동으로 어김없이 한 달을 보낸 부천Y 회원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공동체와 시간을 보냈답니다. 부천Y 3대 과제를 함께 수행하며 우리가 사는 부천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들넌 지키기’는 생명, 평화공동체가 실천해보았습니다. 대장들넌에 직접 가서 그곳에 사는 생물들도 찾아보고, 대장마늘이 어떤 곳인지 둘러보면서 대장들넌과 친해지고, 애정이 쑥쑥 자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과제인 ‘탈핵’은 나눔공동체가 다녀왔습니다. 부천에 시민의 힘으로 만든 햇빛발전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곳에 가서 패널을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고, 패널에 이어진 전선을 타고 인근 꽃집으로 흘러가 사용되는 이야기, 그리고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왔답니다.

세 번째 주제인 ‘미세먼지 줄이기’는 사랑공동체, 섬김공동체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두 공동체 모두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작은 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한 자료를 모아보고, 부천시에서 설치해놓은 미세먼지 측정기와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활동을 통해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녹지환경을 잘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장들녘이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위험한 핵발전이 멈춰지고,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을 만나는 날까지 부천Y의 유쾌한 활동들은 계속됩니다!

민선 6기 시정평가

시민의 눈으로 부천시정 훑아보기¹⁾

회원운동팀 박 다 정

지난 12월 7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지난 민선6기 부천시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부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정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발표가 중심이었던 지난 토론회와는 달리, 이번 민선6기 시정평가 토론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천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에 대해 묻고 앞으로의 기대를 나누는 시간들로 만들어졌다.

‘동네방네 이야기 담기’

시정평가 토론회에 앞서 11월 한 달 동안은 부천시민들이 지난 4년간의 부천시와 행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았다. 부천의 여러 지역, 다양한 연령대의 소모임들을 찾아가 김만수 시장이 임기 초 내세웠던 100대 공약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약은 크게 ‘도시환경, 안전, 경제, 문화, 복지, 교육, 자치행정’ 7개 분야 100대 과제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툴킷(Toolkit-진단카드)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제작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지난 4년간 아쉬웠거나 문제라고 여겨지는 정책을 먼저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문

1)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의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들이 필요한지 진단카드를 골라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역과 나이, 가치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뉘었다. 그야말로 시민들의 시선에서 보면서 피부로 느끼고 평가한 내용들이 모아졌다.

‘정치가 묻고 시민이 답하다’

위의 내용들을 모아 분석하여 12월 7일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3명의 전문가들(도시환경-환경생태연구재단 최진우 박사/ 행정·경제·지방자치-폴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소장/ 복지·교육·문화·여성-김형준 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분석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부천을 바꾸기 위한 시민 원탁토론’을 통해 시행정이 바뀌어야 할 부분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늘 그렇듯 투명하고 충분한 소통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토론장의 시민들이 지적한 것을 보아 우리가 행정에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적’이란 인식이 지난 민선 6기에서는 더 강화되었음을 보았다. 시가 결정하고 시민이 따라가는 시정이 아닌, 시민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가 집행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들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 9월 기획회의부터 시작되어 12월에 마친 ‘민선6기 시정평가’의 전과정은 소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드다(밥상)밥

밥상 넷. 감기특효약이 항생제? No!!

글.그림 연은미







바이러스성 질병인 감기에 항생제가 맞는 걸까?

항생제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항생제는 훨씬 희귀한 박테리아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항생제는 소화를 돕는 다양한 종류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인다. 박테리아는 섬유소를 분해하고, 다른 영양 물질을 생산한다. 또한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박테리아 물질을 분비한다. 어렸을 때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수가 줄어든다. 게다가 해로운 박테리아가 더 큰 내성(나중에 항생제로 죽이기 힘든)을 가지게 된다. 항생제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감염이 반복되고, 가벼운 질병이 악성 박테리아를 가진 심각한 질병으로 바뀔 수 있다. 정작 폐렴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항생제가 필요할 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면 꼭 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에요.

질병이 유별나거나 이상하게 심하거나 오래갈때 의사를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콩나물과 꿀을 섞어서 한나절 보온밥솥에서 보온하면 노란 물이 생기죠. 그걸 마시면 기침감기에 효과가 있어요.



콩나물 조청 만들기

재료: 콩나물 300g, 꿀 또는 조청 150g

1. 콩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다.
2. 콩나물에 꿀을 넣는다.
3. 전기 밥솥에 보온으로 8시간 숙성한다.
4. 콩나물을 건져내고 액기스만 먹는다.

효능 및 먹는 방법

겨울철 호흡기 건강에 좋고 기침을 가라앉히며 갈증 해소에 좋다. 콩나물 조청을 한 스푼씩 떠 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다



다음에 만나요~^^

故 허상보 초대이사장 4주기

그립고 그리운 허상보 초대이사장님! 하늘에서 잘 보고 계시지요~



회원운동팀 간사 정다운

벌써 4주기가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14년 새해를 연 열여섯째 날, 부천YMCA의 큰 어른이셨던 허상보 초대이사장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천YMCA 온 식구들이 망연자실 깜짝 놀라며, 가시는 길 매일매일 온 부천YMCA가 함께 슬퍼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허상보 초대이사장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장수막걸리”가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 것은 아닐 듯합니다. 소박한 막걸리 한 잔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와 친구가 되어 주셨던 초대이사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미소가 아직도 들리는 듯, 보이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중에 크리스천으로서의 봉사를 와이즈멘과 YMCA운동으로 일생 씨름하겠습니다”라고 하느님께 서원하셨던 허상보 초대이사장님의 말씀은 늘 껏가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허상보 초대이사장님 묘소 참배에 올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하며 새해의 시작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



었습니다. 부천YMCA를 창립하셨던 허상보 초대이사장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뒤를 잘 따르라는 뜻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초대이사장님을 회고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이런 저런 부천YMCA의 아픈 시간들을 안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하늘에서 보고 계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뿌듯해하실까 이야기나누기도 하며 울다가 웃다가 한없이 그 분을 그리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천YMCA를 사랑하시고 YMCA운동에 당신의 삶을 헌신하셨던 허상보 초대이사장님, 당신이 안 계셨다면 아마도 지금의 부천YMCA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스스로 YMCA를 사명으로 하느님께 서원하며,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시고 소박한 삶과 나눔으로 묵묵히 부천YMCA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허상보 초대이사장님!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부천YMCA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 닦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서른 여섯 살 부천YMCA 모두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더 많은 부천YMCA 식구들과 뒤편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해주시리라 믿으며...!

눈이 내리면



광장기자단 왕 정 현

눈이 내린다.
기쁨도 잠시, 걱정이 쌓인다.
할 일도 많아진다.

눈

지난 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 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어린 윤동주가 태어나 소학교 시절까지 자란 명동촌이라는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경치가 더욱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동시들 중에서도 겨울과 눈을 노래한 것이 많은 가봐요. (P.111)



시인 윤동주 생가

사방이 아파트, 건물 뿐인 우리 동네에 눈이 내리면 시끌벅적 뛰어 노는 아이들보다 바쁘게 눈을 치우는 어른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눈은 반겨주는 이가 없어 슬프겠다.
옛날이 그리웠다.

[출처]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저자 윤동주
출판사 푸른책들
2006. 04. 20



등대생협

고추장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오복녀등대 이진영

‘고추장만들기’는 등대 밥상활동으로 매년 12월에 함께

‘고추장을 직접 만든다고? 나는 마트 고추장도 충분히 맛나던데...’

평소 고추장을 잘 먹지 않는 우리 집, 고추장은 사다 먹는 거지 직접 만들어 먹는 거라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는 나였다. 12월 등대 밥상활동은 고추장 만들기라는 걸 알고부터 밥상지기인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 텅어리들.....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기에 느꼈던 부담감이었던 것 같다.

12월 19일, 드디어 고추장을 만드는 날!





YMCA 5층 체육관에 모여 자리를 잡고 휴대용가스렌지에 냄비를 올려 물을 끓이는 것부터 우리의 고추장 만들기는 시작되었다. 엿기름을 잘 삭히고 고춧가루, 메주가루, 조청을 넣어 끓인 뒤 소금을 솔솔 뿌려주면 완성.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고추장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다. 물론 소량이어서 시간도 적게 들고 쉽게 끝났겠지만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은 태양초 고춧가루 사용을 강조하고는 있다지만 자세히 보면 함량이 상당히 적고 표기되지 않은 합성첨가물이나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맛있는 고추장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경험을 한 이상 이제 나는 시판 고추장 보다는 직접 만드는데 필요한 엿기름이나 메주가루에 눈길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밥상지기님들을 비롯하여 함께한 촛불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고추장 맛있게 숙성되면 떡볶이 만들어 먹어요 우리~~~~~

등대생협

메주 만들고 왔어요!!

웃음소리등대 박새롬

어느덧 초봄이 된 지 3년차.

작년에 처음으로 된장 담그기를 성공하고 올해는 메주까지 손수 만들어 장담그기를 해보려 팔당 제철채소꾸러미 생산자이신 이흥건 선생님 덕을 방문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 한파를 뚫고 삼삼오오 모여 와이회관 앞에서 몇 대의 차를 나누어 이동했다. 팔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 이야기와 세상 사는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길가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눈과 가슴에 담으니 지루하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잠시나마 학창시절로의 시간여행을 떠난 듯 행복함과 설렘을 한가득 안고 이흥건 선생님 덕에 도착!!! 두 내외분께서 집 앞에 나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주시고 맑은 공기까지 함께 마중 나온 듯 코가 땡 뚫리는 듯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메주 만들기 방법을 알려주셨다. 맛있게 구워진 고구마, 감자까지 내주셔서 열심히 먹으며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

본격적인 작업으로 돌입!!! 마당 한 칸에 자리 잡은 가마솥에는 메주콩이 한가득 삶아져있었다. 수월한 작업을 위해 하루 전부터 콩을 불리고 삶아 주셔서 우린 쉽게 할 수 있었다. 삶아진 콩을 으깨고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면서 각자 맡

은 바의 임무를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께서는 부천와이등대생협 촛불
 님들이 최고로 일을 잘하시는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누구하나 힘든 내색 없이 빼는 거 없고 척척!! 내가 봐도 우리 촛불님들의 협
 동심은 최고의 능력인 듯하다. 잘 만들어진 메주를 건조기에서 며칠 말린 후 최
 적의 온도와 환경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빻짚으로 만들어진 끈에 매달려 맛있
 는 메주로 띄워지는 일만 남았다.

메주 만들기가 끝나고 선생님 댁에서 다 같이 모여 점심시간~~!! 뜨끈한 국
 과 윤기 흐르는 밥을 준비해주셔서 각자 몇 가지씩 싸온 밑반찬으로 꾸며진 우
 리의 시골밥상 점심시간~!! 정말 꿀맛이 따로 없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밥상이라 그런지 더 뜻깊은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선생
 님의 팔당에서의 이모저모 생활이야기도 듣고, 우리 촛불님들의 장담그기에 대
 한 포부와 계획들도 나누며 오늘 체험의 마무리를 했다.

정체불명의 식품이 판치는 현실에서 내가 열심히 만든 몸에 좋은 장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체험을 준비해주신 이흥건
 선생님 내외분과 와이 실무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우리딸 서윤이
 가 정해진 이름 명품된장 박
 된장~~!! 작년보다 더 맛있
 게 태어나길 기대하며~~!! 안
 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로 우
 리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실
 천하는 등대생협 촛불의 메주
 만들기 체험후기를 마친다.



“우리는 배달민족”

한 면 희 부천YMCA등대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우리는 ‘배달민족(倍達民族)’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머리에 얼른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보다는 통닭 배달이나 짜장면 배달이 먼저 생각납니다. 배달민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멀어진 탓이겠지요.

배달(倍達)의 뜻이 애매한데 한자의 발음을 빌어서 기록했을 뿐이고 ‘밝달’이 변형된 단어로 보입니다. 밝달에서 ‘밝’은 ‘밝은’이고 ‘달’은 양달 응달이라고 할 때의 ‘땅’입니다. 따라서 배달은 ‘밝은 땅’입니다.

밝은 땅은 햇볕이 잘 들어서 따뜻한 땅이니 산이 있어 찬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있어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으로 또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배달을 만나면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북쪽보다 남쪽을 좋아하여 남향집을 짓고 또 서쪽보다는 동쪽을 좋아합니다.

배달은 우리 체질에 맞는 ‘동남쪽의 땅’이고 아시아대륙에서 보면 동북쪽 황해(黃海) 연안으로 중국의 동부지역, 한반도의 서부지역과 일본의 규슈지역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쪽의 바다를 서해(西海)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황해는 아직도 인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 중국이나 일본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명칭입니다.

황해 연안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땅입니다. 무궁화는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는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황해 연안은 바둑의 땅입니다. 고대의 동이족 무궁화 임금인 순(舜)이 바둑을 만들어서 천지인의 원리와 생활의 지혜를 가르쳤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민족(民族)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동안 같이 살면서 혈연, 언어, 문화, 역사로 형성된 집단’입니다. 족(族)은 겨레인데 깃발 아래 화살이 있으니 살고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갖고 있는 무리로 봅니다. 그리고 민(民)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백성(百姓), 어둡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어리석음입니다.

민이 들어가는 민족, 민주, 민중은 모두 가슴이 뛰는 어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민의 뜻을 살펴보면 의외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픔니다. 민(民)이라는 글자는 날카로운 창으로 한쪽 눈을 찔러 애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민은 지배하는 소수 씨족이 지배받는 다수 씨족의 눈을 멀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저항할 수 없도록 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양반과 상놈 신분제도의 고대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새해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내부 단결과 한중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쯤 눈을 크게 뜨고 심호흡을 하면서 배달민족, 황해, 무궁화, 바둑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12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열두 번째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잘 끝났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한파에 손끝 발끝이 아려왔지만, 이웃에게 좋은 김치를 주고 싶은 마음에 모두가 열심히 김장을 담그고, 집집마다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김장행사는 훈훈한 이야기가 많아 어느 해보다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열두 번째 김장에 함께한 사람들

부천Y 회원, 유베이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등 부천시민 총 200여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1가정 김장 후원, 클럽들의 회비, 아스단 공동체한마당과 등대의 행복한 나눔장터, 유베이스 직원들의 월급 끝전모으기 운동 ‘모아유’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추농사가 흉작이라 헛고춧가루의 값이 ‘금춧가루’라고 불릴 정도로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모두가 신경써준 덕분에 이번 김장에 필요했던 92kg보다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신 디딤돌 회원님께서도 맛있는 시골 고춧가루를 10kg 담아 택배로 보내기도 하였고,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옆에 붙은 고춧가루 모금액을 확인하며 선



생님, 엄마에게 ‘고춧가루를 보내야 해요!’라며 재촉했던 아گی스포츠단 아이들도 한 몫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정성들을 모아 부천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중 275가정에 10kg 김장김치를 나누었습니다.



The 훈훈한 이야기

부재료를 공급해주신 채소가게 사장님은 김치와 함께 넣을 굴 30박스를 후원하시고 채소도 원가로 내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수영 회원님은 나눔터에 고춧가루와 매실액을 커다란 장바구니에 넣어 들고 와주시고, 모금함을 보고 좋은 일에 쓰라며 5만원을 넣고 가시기도 하고, 홍은정 전 이사님과 박새롬 촛불님은 집에서 직접 만든 귀한 새우젓을 직접 가져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이맘때쯤 김장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때맞춰 자원봉사를 신청해주신 여러 촛불님들,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김장 행사가 진행된 3일을 생각하면, 추운 날씨에 모두 고생스러우면서도 마주치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해낼 수 있었고, 더 의미있었던 열두 번째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새로 다가오는 한 해도 나눠주신 사랑만큼 행복해지는 날들이길 바랍니다.

모두모두 감사해요!♥

특별한 날 기부

- 원중호 증경이사장님께서 팔순을 맞으신 좋은 날을 기념하며 부천Y에 5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 사진클럽 선용 이은향 회장님께서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교복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 아버지교실 장경문 고문께서 회갑을 맞아 함께 축하해주신 아버지교실에 3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 희망학원 이수진 대표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교복지원금 50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하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좋은 곳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원모집운동 보고대회

11월,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함께 시작되는 것이 있죠. 2017년에도 어김없이 회원모집운동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8 회원모집운동의 주제는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였습니다. 새로운 숲이 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동체별로 활동을 하고 다시 Y에 모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송년예배에서는 기다림조에 불을 밝히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활동 발표의 시간! 다섯 공동체가 ‘대장들넌 지키기’, ‘미세먼지 줄이기’, ‘탈핵’ 세 주제를 가지고 부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공동체가 활동한 내용들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발표자가 나오면 박수와 환호성을 질러주기도 하면서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연말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 회원모집운동은 총회 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주변에 부천Y를 많이 알려서 많은 회원들을 모아보아요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사·간사 대화 모임

2018년 2월의 첫째주 토요일 6층 신나는방에 이사14명, 간사16명이 이른 아침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 모임의 첫걸음을 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017년 8월 재단 감사보고에서 이사의 자격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후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3년간 내부갈등 전반에 대한 정리를 하고, 부천Y 이사, 간사의 책임성,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안) 또는 지침(안)을 작성 및 확정하기 위해 “이사, 간사 대화모임” 진행을 역할로 하는 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1, 2차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그 첫 모임을 시작하며, 오전 시간에는 과거 나의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엄기숙 이사님께서 후원해주신 맛있는 점심식사 후 오후 시간에는 몇 분을 모시고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난 후, 느낌을 나누며 이후 대화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바램들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중 1시간을 “존중의 약속, 신뢰씨름, 평화 감수성 훈련, 회복적 대화모임” 등으로 운영하고, 간사회는 “회복적 정의” 간사교육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약속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유지전문 공영제의 핵심축인 부천 Y 이사·간사, 모두가 평화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책임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길위에학교!! 베트남평화기행 (2018.1.16.~2018.1.25)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 그 아픔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꽃같은 기행. 베트남평화기행이 올해에도 1.16~1.25 동안 진행됩니다. 매년 한결같이면서도 새로운 지속가능한 청소년 역사평화기행을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Y】‘겨울화천자연캠프’!!



조선 전기의 문신인 유관이 ‘화천’을 노래한 『여지도서』에는 ‘구름과 가까워 옷이 젖는 고을’이라고 소개 되어있을 만큼 화천은 아름다운 자연이 예부터 뛰어난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계절이 모두 아

름다운 화천이지만 대표적인 볼거리로 ‘산천어축제’와 수달을 만날 수 있는 ‘수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기행단 친구들과 산천어 축제에도 참여해보고,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귀여운 수달을 만나고 왔습니다. 또한 폐교를 새로 정돈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토고미자연학교’에서도 하룻밤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토고미 학교에서는 생협에서도 판매하는 맛난 토고미 쌀 밥상을 만나 볼 수 있어 건강한 밥상도 맛보고, 신나는 시골학교 운동장에서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18~19일 1박2일로 진행된 ‘겨울화천자연캠프’!! 여름에 다시 찾아갈 기대를 품고, 1박2일 화천에서의 즐거운 캠프를 마쳤습니다.

직원 동정

- 김수연 선생님이 2018년 1월 2일부로 부천YMCA 체육교육팀으로, 김영서, 임소라 선생님이 2월 1일부로 어린이교육팀으로 입회하였습니다. 새로운 만남에 반갑고 환영합니다.
- 어린이교육팀 윤다솜 선생님, 회원운동팀 조혜진 선생님이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퇴회합니다.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쉽지만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 클럽일정 •

아버지교실

월례회

일시: 2월 13일(화) 오후 8시
장소: 5층 나눔방

녹색가게

운영위원회

일시: 2월 12일(월) 오후 1시
장소: 5층 나눔방

제21차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접수: 2월 20일(화)~22일(목)
오전10시~오후4시
판매: 2월 23일(금), 24(토), 26(월), 27(화)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부천시청 1층 로비(원미지역 학교)
원미아울마당 지하층 교복은행
(소사, 오정지역 학교)

등대생협

마이마이 소모임

일시: 2월 12일(월) 오전 10시

등대생협이사회

일시: 2월 20일(화) 저녁 7시

지기월례회

일시: 2월 28일(수) 오전 10시

제21차 등대생협 정기대의원총회 및 등대촛불잔치

일시: 3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6층 신나는 방

사진클럽 <선용>

정기모임 및 월례회

일시: 3월 8일(목) 저녁 7시 /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사사진작업실

선용 신입회원모집

홍보기간: 2월 1일 ~ 14일
선용클럽소개: 2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문의: 이은향 회장(010-4761-66030)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클럽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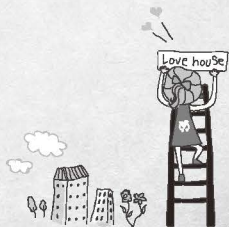
정기모임 및 월례회

일시: 2월 22일(월례회) / 3월 29일(월례회)
3월 8일, 15일, 22일(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식생활교육 클럽 <쌀한들>

정기모임

일시: 2월 20일(화) 오후 1시
장소: 5층 나눔방



• 주요일정 •

부천YMCA 제37차 정기총회

일시 : 2월 22일(목) 오후 7시
장소 : 5층 체육관

제2차 대장들녘 생명포럼

일시 : 2월 27일(화) 오후 7시
장소 : 부천시민학습원 3층 누리터

봄직원수련회

일시 : 3월 3일(토)~4일(일)
장소 : 칠원일대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6차 정기총회

일시 : 3월 15일(목) 오후 7시
장소 : 미정

어린이

1학년 오리엔테이션

일시 : 2월 20일(화) 오후 3시
장소 : 2층 한마음반

네 번째 하룻밤캠프

일시 : 2월 21일(수)~22일(목)
장소 : 칠원 평화 학교

체육교육팀

수영재등록 2월 19일~22일까지
수영반변경 2월 23일
3월 수영신규등록 2월 26일 월요일

응급처치교육

2월 27, 28일 3, 4, 5, 6시 각수업시간

아기스포츠탄

수료&졸업식

일시 : 2월 21일(수)
장소 : 5층 체육관

학부모 입단 설명회

일시 : 2월 24일 (토)
장소 : 송내어울마당

입단식

일시 : 3월 7일 (수)
장소 : 5층 체육관





부천YMCA

제37차 정기총회 공고

부천YMCA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7시
- 장소 : 부천YMCA 5층 체육관

1부 공동예배

2부 정기총회

1.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2. 이사 및 감사의 선거
3. 헌장개정
4.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사람 · 어울림 · 꿈



부천YMCA

제21회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교복을 팔아 드립니다!

- ※ 판매금액에서 위탁판매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은 3월 말에 개별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 판매되지 않은 교복은 교복은행 상설매장에 무상 기증됩니다.
- ※ 위탁판매 수수료와 무상기증 교복판매 수익은 매년 12월에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복 한 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증명서 제출)

접수 및 판매 물품

- 동복 자켓 10,000원
- 바지, 치마, 가디건 각 5,000원
- 조끼 4,000원
- 셔츠, 블라우스, 생활복 각 3,000원
- 타이, 리본 각 1,000원
- 참고서, 체육복 상, 하 각 1,000원



일 시

- 접수기간 : 2월 20일(화)~22일(목) 오전10시~오후4시
- 판매기간 : 2월 23일(금)~27일(화) 오전10시~오후4시
- ※ 2월 24일(토) 교복판매 정상 운영합니다.

장 소

- 부천시청 1층 로비
(원미지역 학교) 녹색가게 사무국 ☎ 325-3100
- 원미어울마당 B1층
(소사지역, 오정지역 학교) 교복은행 상설매장 ☎ 613-6821

- ※ 교복접수 시 교복을 세탁한 후 옷걸이에 걸어서 통장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적어오세요.
(가능한 농협계좌로 기록해주시면 수수료가 적습니다.)

학교별 교복판매 장소

• 부천시청 1층 로비 (원미지역 학교)

계남중, 계남고, 경기예술고, 경기국제통상고, 부명중, 부명고, 부인중, 부천여고, 부천정보산업고, 부곡중, 부흥중, 상도중, 상동중, 상월중, 상원고, 상일고, 석천중, 소명여중, 소명여고, 심원중, 심원고, 원미중, 원미고, 중원중, 중원고, 중흥중, 중흥고

• 원미어울마당 지하 1층 교복은행 (소사지역 학교)

부일중, 부천남중, 부천동여중, 부천동중, 부천여중, 부천일신중, 성주중, 소사중, 역곡중, 범박고, 부천고, 부천공고, 소사고, 송내고, 시운고, 진명중, 정명고, 정명정보고

• 원미어울마당 지하 1층 교복은행 (오정지역 학교)

내동중, 덕산중, 덕산고, 도당고, 부천북고, 부천여월중, 성곡중, 끼치울중, 수주중, 수주고, 원중고

교복물려입기 행사종료 후 원미어울마당 지하1층 교복은행에서
연중 판매합니다.(평일 오전11시~오후5시, 032-613-6821)

